

##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경험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수진<sup>1)</sup> · 문찬주<sup>2)</sup>

### 요약

이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3-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선택편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을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주 초과 장기현장실습의 참여는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16주를 초과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과 16주 이하로 참여한 학생들 간에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있어서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4년제 대학생 현장실습, 진로결정, 구직활동, 경향점수매칭

## I. 서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속한 사회 변화는 대학이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 확보하고 국가경쟁력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신현석, 선애경, 2019). 대학의 산학협력은 목적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형 산학협력과 인력양성형 산학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인서, 2020). 이중 인력양성형 산학협력은 대학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학협력교육의 모델로서 대학생의 현장실습이 강조, 확대되고 있다(장후은, 허선영, 이종호, 2017).

대학생의 현장실습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의 산학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학교 밖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식을 의미한다(교육부, 2021). 현장실습은 대학생이 진로를 개발하고,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학과 산업체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체 수요에 따른 스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는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장명희, 정동열, 2016). 현장실습은 운영 기간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유연하게 운영되는 단기현장실습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는 장기현장실습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지영, 이상곤, 2019; 조세홍, 장명희, 홍은선, 2019).

현장실습은 대학생이 실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기르고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이지영, 이상곤, 2019), 대학생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현장실습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실습생들의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연합뉴스, 2021.07.10.). 이에 2021년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통해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운영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운영 규정 강화는 현장실습생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취업 시 높은 직무역량 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구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하는 상황(박지성 외, 2023), 즉 대학 교육과정으로서 현장실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처럼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한해 15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장기 및 단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대학생 현장실습은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이영선, 장환영 외, 2020). 이 과정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가 개인의 역량(남화성, 유미선, 2018; 백상현, 2020; 송윤희, 2017 등), 진로 관련 변인(유지원, 2017; 유지원, 송윤희, 2017; 조현재, 2010 등), 취업(가혜영, 김보영, 2021)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의 영향을 특정 사업, 대학 또는 학문 계열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며, 인과추론의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연구방법론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현장실습의 효과를 주로 참여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참여 기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려는 노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Ⅱ)의 3-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을 참여 여부와 참여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정오차의 문제를 완화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4년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 첫째,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가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둘째,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현장과 실습의 합성어로 일을 ‘실제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곳’에서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제로 해보고 익히는 일’을 뜻한다(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1). 학술논문에서는 현장실습을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재학 기간 중 일부 동안 산업체 현장에 적용해보고, 전공 관련 직무를 체험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임정연, 2016), 세계 장기현장실습협회에서는 자신의 전공 및 진로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과 일 경험을 통합시키는 교육 방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유지원, 2017에서 재인용).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진로와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데 구체성을 더해줄 수 있다(이미나, 유지원, 2019). 또한 대학과 산업현장 간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평가받는다(심태은, 양윤정, 2022).

그러나 현장실습은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우며 용어에 혼선이 있어 왔다.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을 인턴십(internship), 샌드위치 프로그램(sandwich program), 코업 프로그램(Co-op program) 등의 용어로 활용해 왔고(송윤희, 2017), 정부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관련 사업에서도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산업인턴, 직무체험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왔다(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1). 이에 2021년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통해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현장실습이라는 모호한 개념 대신 ‘현장실습 수업 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로 명명하고,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개념화했다(교육부, 2021). 이 규정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에 학생들이 학점을 부여받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근거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들어 산학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으며(송윤희, 2017), 한해 15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장기 및 단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대학생 현장실습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이영선 외, 2020). 이 과정에서 대학생 현장실습이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 왔지만,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한 대학의 역량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왔다(장후은, 허선영, 이종호, 2017). 특히 단기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공분야 업무에 투입되지 못해 학생의 실무적 전문성을 키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남화성, 유미선, 2018; 장후은, 허선영, 이종호, 2017). 이에 대학과 현장실습기관 간의 공동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현장실습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하는 장기현장실습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다(남화성, 유미선, 2018; 이지영, 이상곤, 2019; 조세홍, 장명희, 홍은선, 2019).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을 일정 기간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실무를 익히는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대학생 현장실습의 참여 경험에 따른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현장실습의 참여 경험은 참여 여부와 참여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중 현장실습 참여 기간에 따른 분석은 장기현장실습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 선행연구 분석

대학생의 현장실습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현장실습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 현장실습 참여 경험과 인식을 분석한 연구,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분석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의 현장실습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현장실습의 영향을 역량, 진로, 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대학생의 현장실습 경험과 역량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대학생의 핵심역량(남화성, 유미선, 2018; 최준열, 김한나, 김도기, 2017), 대인관계 역량(백상현, 2020, 송윤희, 2017), 의사소통능력 및 융합역량(송윤희, 2017) 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현장실습 경험과 진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현장실습 참여가 진로준비도(조현재, 2010), 진로개발역량(이민욱, 이가영, 김정현, 2020), 진로통찰력(유지원, 2017; 유지원, 송윤희, 2017; 이미나, 유지원, 2019) 등을 유의하게 높임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경험은 고용가능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혜영, 김보영, 2021).

한편, 선행연구 중에는 12주에서 16주 이상의 장기현장실습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남화성, 유미선, 2018; 조세홍, 장명희, 홍은선, 2019)와 현장실습의 참여 기간에 따른 영향(조현재, 2010)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이 중 현장실습의 참여 기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연구인 조현재(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기제와 계절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 프로그램의 참여가 진로개발준비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기제는 진로개발준비도와 자아정체감을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반면, 계절제는 진로개발준비도에만 유의미한 향상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의 현장실습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을 나타낸다.

둘째,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과 인식을 분석한 연구로는 심태은, 양윤정(2022), 이영선 외(2020)가 있다. 먼저, 심태은, 양윤정(2022)은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들의 현장실습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여 총 네 가지 유형인 사회생활 중시 유형, 직무 경험 중시 유형, 스펙 중시 유형, 자기 성장 중시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영선 외(2020)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단계적인 내적 변화와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장실습 경험과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현장실습을 통한 진로, 사회진출을 위한

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분석한 연구로는 장후은, 허선영, 이종호(2017)와 조성은, 이영민(2016) 등이 있다. 먼저, 장후은, 허선영, 이종호(2017)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대학 현장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실효성이 낮은 단기 위주의 현장실습 대신 12주 이상의 장기현장실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양질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조성은, 이영민(2016)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경험이 있는 전국의 기업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장실습 모집경로를 다양화하고, 학생 주도의 현장실습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실습 이후 취업으로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교육부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고시 이후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 및 대응(유영삼 외, 2023), 대학 현장실습 운영자의 인식(김태형 외, 2023) 등을 조사한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현장에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영향을 역량, 진로,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왔고, 실제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현장에서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의 현장실습 경험을 다양하게 분석해 왔으나, 분석 자료의 측면에서 주로 특정 사업, 대학 또는 전공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진로역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를 이루지만,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이라는 진로준비도, 직업세계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을 참여 여부와 참여 기간으로 구분하고, 현장실습 참여 경험과 참여 기간이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4년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진로결정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나타나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직업 세계로의 이행이 가능하다(정주영, 2018). 따라서 진로결정은 주요한 변수로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취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요 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1〉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저자(연도)	분석 자료	분석 방법	주요 연구 결과
역량	남화성, 유미선 (2018)	(IPP에 참여한 K대학교 학생) 설문조사 자료	t검증	• 사전-사후 분석 결과, 장기현장실습(IPP)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핵심역량 중 전문역량, 소통역량, 창의융합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백상현 (2020)	한국교육 종단연구	HLM	• 현장실습 참여는 대인관계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송윤희 (2017)	(수도권 A대학교 학생) 설문조사 자료	ANOVA	• 현장실습 참여 경험을 참여 횟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현장실습 경험이 많을수록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융합역량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준열, 김한나, 김도기(2017)	NASEL	HLM	• 국내외 현장실습 및 견학 답사 등의 경험은 핵심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침
진로	유지원 (2017)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설문조사 자료	t검증	•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향상을 이루어냄
	유지원, 송윤희 (2017)	(수도권 소재 대학교 학생) 설문조사 자료	다집단 잠재평균분석	•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집단의 실무역량,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의 잠재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이미나, 유지원 (2019)	(수도권 A대학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설문조사 자료	ANCOVA	•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실무역량과 진로통찰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민욱, 이가영, 김정현 (2020)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위계적 회귀분석	• 현장실습 및 인턴프로그램 참여는 진로개발역량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조현재 (2010)	(대구 K대학교 학생) 설문조사 자료	t검증, MANOVA	• 현장실습 프로그램 중 학기제는 진로개발준비도와 자아정체감을 모두 유의하게 향상시키지만, 계절제는 진로개발준비도만 유의하게 높임
취업	가혜영, 김보영 (2021)	(충청권 대학교 학생) 설문조사 자료	다중회귀분석	• 현장실습 경험은 고용가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 창업의도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Ⅲ. 연구 방법

#### 1. 분석 자료 및 대상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의 3-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Ⅱ는 대학생의 현장실습, 진로결정, 구직활동과 같은 정보와 더불어 학생의 교육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4년제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이 연구의 관심변수인 현장실습 참여 경험 관련 변수는 5차년도와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은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외의 통제변수는 3-6차년도 자료 중 변수 특성에 맞게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분석 변수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는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이다. 진로결정은 졸업 후 직업을 결정한 경우는 '1',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구직활동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구직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이 연구의 관심변수인 현장실습 참여 경험은 참여 여부와 참여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현장실습 참여 여부의 경우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코딩하였고, 참여 기간의 경우<sup>3)</sup> 16주 초과인 경우 '1', 16주 이하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김현순, 2018; 정주영, 2018; 정주영, 주영호, 전하람, 2018 등). 먼저 개인특성 변수로는 성별, 전공계열, 성적, 학과 만족도, 복수전공 여부, 학과 선택, 아르바이트 여부를 선정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1', 여학생을 '0'으로 더미코딩했고, 전공계열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계열로 더미코딩하고 인문계열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

3) 일반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기간은 4주, 8주를 단기현장실습으로 보고, 12주 이상 또는 16주 이상을 장기현장실습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에 따라서는 12주 이상을 장기현장실습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며(장후은, 허선영, 이종호, 2017; 조세홍, 장명희, 홍은선, 2019), 16주 이상을 장기현장실습으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남화성, 유미선, 2018; 이지영, 이상근, 2019). 정부 사업 중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으로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을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하기 위해 16주 초과와 16주 이하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때에 5차년도와 6차년도의 각 차수별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의 총합을 16주 초과와 16주 이하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성적은 각 학기 평균 평점을 평점 만점으로 나누어 백을 곱한 값을 활용하였고, 학과 만족도는 각 학년별 학과 만족도의 평균 값을 활용하였다. 복수전공 여부는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1', 단일전공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학과 선택을 스스로 선택한 경우 '1', 타인에 의해 선택한 경우 '0'으로 코딩했으며, 아르바이트 여부는 1개월 이상 지속한 교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가구특성 변수로는 로그 가구소득을 활용하였는데,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다. 학교 특성은 학교 소재지를 활용하였으며,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는 '1', 비수도권인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진로결정	결정(1), 미정(0)
	구직활동	있음(1), 없음(0)
관심변수	현장실습 참여 여부	참여(1), 미참여(0)
	현장실습 참여 기간	16주 초과(1), 16주 이하(0)
통제 변수	성별	남학생(1), 여학생(0)
	전공계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계열로 더미 코딩 (참조집단=인문계열)
	성적	(각 학기 평균 평점 / 평점 만점) × 100
	학과 만족도	각 학년별 학과 만족도의 평균 값
	복수전공 여부	복수전공(1), 단일전공(0)
	학과선택	자의(1), 타의(0)
	아르바이트 여부	있음(1), 없음(0)
가구 특성	로그 가구소득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학교 특성	학교 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 3. 분석 방법

#### 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Logit)

이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 변수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분석의 식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langle \text{식} \rangle \quad \ln\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beta_1 X_i + \dots + \beta_k X_{ki}$$

승산비(odd ratio)에 해당하는  $\frac{p_i}{1-p_i}$ 에 로그를 취한 값인  $\ln\left(\frac{p_i}{1-p_i}\right)$ 을 로짓(logit)이라고 하며(김청택, 2019), <식>에서  $\ln\left(\frac{p_i}{1-p_i}\right)$ 는 각 분석의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구직활동에 대한 로짓이라 볼 수 있다.  $\beta_0$ 는 상수,  $\beta_1$ 은 각 분석별로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 또는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에 대한 회귀계수이고,  $\beta_k$ 는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에 해당한다.

#### 나.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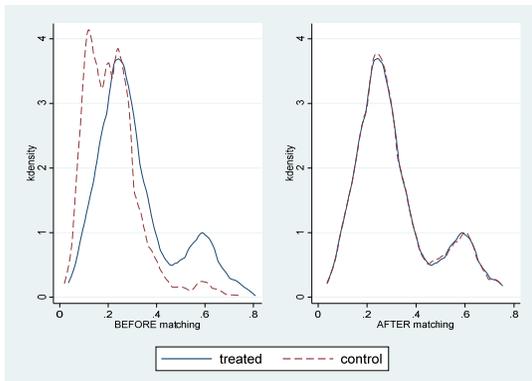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와 참여 기간은 개인이 가진 여러 특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택편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정오차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향점수매칭이 있다. 경향점수매칭은 Rosenbaum과 Rubin에 의해 소개된 이래 사회과학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 방법으로, 각 개인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을 예측하여 처치집단에 속할 확률인 경향점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매칭하는 방법이다(민인식, 최필선, 2019). 이 연구에서는 매칭 방법으로 K-nearest neighbor 매칭을 활용하였으며(민인식, 최필선, 2019), 구체적으로 처치집단의 개인과 가장 경향점수가 유사한 사례를 통제집단에서 3명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1:3 매칭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칭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제집단에서 매칭이 이루어진 개인의 사례를 다시 투입하여 대체(replacement)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매칭을 실시하였다(김영식, 문찬주, 2018).

이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 및 참여 기간에 대한 경향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성별, 전공계열, 성적, 학과 만족도, 복수전공 여부, 학과 선택, 아르바이트 여부, 학교 소재지를 선결변수(Predetermined variables), 즉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을 살펴보면, 경향점수 매칭 전과 비교하여 매칭 이후에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서와 같이 매칭 전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경향점수 분포를 통해서도 집단 간 이질성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에 따른 경향점수 매칭 전후 분포를 비교한 [그림 2]에서도 집단 간 이질성이 줄어들어 선택편의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 17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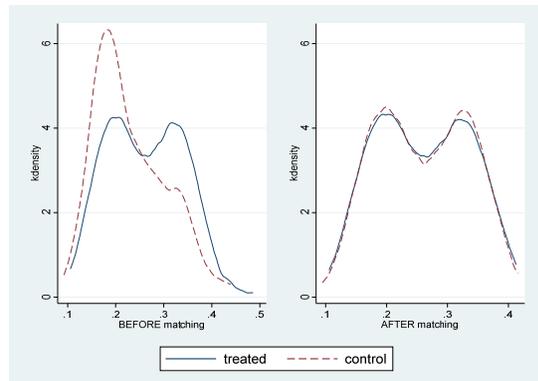
〈표 3〉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에 따른 경향점수매칭 결과

구분	경향점수 매칭 전			경향점수 매칭 후		
	현장실습 참여	현장실습 미참여	t	현장실습 참여	현장실습 미참여	t
성별	0.179	0.348	-8.11***	0.179	0.190	-0.49
전공계열(의학=1) <sup>4)</sup>	0.212	0.058	11.73***	0.211	0.212	-0.07
성적	77.546	76.508	1.96*	77.557	76.948	0.95
학과 만족도	3.907	3.720	5.73***	3.906	3.915	-0.25
복수전공 여부(복수전공=1)	0.171	0.173	-0.13	0.169	0.186	-0.76
학과 선택(자의=1)	0.758	0.800	-2.25**	0.759	0.743	0.65
아르바이트 여부(있음=1)	0.164	0.103	4.17***	0.163	0.175	-0.55
학교 소재지(수도권=1)	0.384	0.483	-4.35***	0.385	0.423	-1.36

주: \* p<0.1, \*\* p<0.05, \*\*\*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그림 1〕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에 따른 경향점수매칭 분포 비교



〔그림 2〕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에 따른 경향점수매칭 분포 비교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분석 사례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현장실습 참여 여부, 그리고 현장실습 참여자 중에서 장기현장실습(16주) 참여에 따라 집단을 각각 구분하여 주요 변수들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4) 공변인으로 투입한 전공계열의 경우 의학계열을 '1'로 코딩하고, 이외의 계열을 '0'으로 코딩하였다. 이는 의학 계열의 경우 현장실습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현장실습참여 문항 응답자 중 참여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전공계열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먼저 현장실습 참여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주요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 중에서 진로를 결정한 비율은 약 66.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참여 학생들은 약 39.5%가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 비율이 더 높았다. 구직활동 여부 또한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약 19.1%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약 12.8%가 구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이외 성별의 경우, 미참여 학생들의 남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전공계열별로 현장실습 참여 비율은 사회계열, 의학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적과 학과 만족도의 경우, 참여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복수전공 여부, 아르바이트 여부, 로그 가구소득도 참여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과 선택을 자의로 한 학생은 현장실습에 미참여한 학생들이 소폭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4〉 기술통계

구분		현장실습 참여 여부		현장실습 참여 기간		
		참여	미참여	16주 초과	16주 이하	
종속변수	진로결정	사례수	709	2,397	130	397
		평균	0.660	0.395	0.677	0.738
		표준편차	0.474	0.489	0.469	0.440
	구직활동	사례수	760	2,908	134	425
		평균	0.191	0.128	0.239	0.139
		표준편차	0.393	0.334	0.428	0.346
통계변수	성별	사례수	784	3,046	136	435
		평균	0.244	0.467	0.147	0.195
		표준편차	0.430	0.499	0.355	0.397
	인문계열 (참조집단)	사례수	784	3,046	136	435
		평균	0.065	0.129	0.037	0.064
		표준편차	0.247	0.335	0.189	0.246
	사회계열	사례수	784	3,046	136	435
		평균	0.217	0.259	0.221	0.191
		표준편차	0.412	0.438	0.416	0.393
	교육계열	사례수	784	3,046	136	435
		평균	0.186	0.040	0.074	0.301
		표준편차	0.390	0.195	0.262	0.459
	공학계열	사례수	784	3,046	136	435
		평균	0.152	0.284	0.162	0.097
		표준편차	0.359	0.451	0.370	0.296
	자연계열	사례수	784	3,046	136	435
		평균	0.108	0.108	0.118	0.078
		표준편차	0.311	0.310	0.323	0.269
의학계열	사례수	784	3,046	136	435	
	평균	0.198	0.054	0.324	0.202	
	표준편차	0.399	0.226	0.470	0.402	

구분		현장실습 참여 여부		현장실습 참여 기간		
		참여	미참여	16주 초과	16주 이하	
예체능계열	사례수	784	3,046	136	435	
	평균	0.074	0.127	0.066	0.067	
	표준편차	0.262	0.333	0.250	0.250	
성적	사례수	709	2,566	130	406	
	평균	77.711	76.157	78.632	76.972	
	표준편차	11.119	11.967	10.019	10.615	
학과 만족도	사례수	721	2,598	130	412	
	평균	3.884	3.706	3.831	3.892	
	표준편차	0.659	0.760	0.764	0.594	
복수전공 여부 (복수전공=1)	사례수	756	2,800	132	428	
	평균	0.163	0.142	0.212	0.159	
	표준편차	0.369	0.349	0.410	0.366	
학과 선택 (자의=1)	사례수	676	2,538	115	388	
	평균	0.757	0.796	0.757	0.758	
	표준편차	0.429	0.403	0.431	0.429	
아르바이트 여부 (참여=1)	사례수	734	2,469	131	420	
	평균	0.153	0.094	0.145	0.155	
	표준편차	0.360	0.292	0.353	0.362	
가구 특성	로그 가구소득	사례수	534	2,255	88	307
	평균	15.468	15.439	15.547	15.413	
	표준편차	0.549	0.871	0.540	0.537	
학교 특성	학교 소재지 (수도권=1)	사례수	735	2,748	131	420
	평균	0.393	0.462	0.405	0.350	
	표준편차	0.489	0.499	0.493	0.478	

다음으로 현장실습을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16주를 초과한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과 16주 이하 실습을 참여한 학생들 간에 주요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16주 초과 참여 학생들 중에서 진로를 결정한 비율은 약 67.7%로 나타났고, 16주 이하로 참여한 학생들은 약 73.8%로 나타나 16주 이하로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 결정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달리 구직활동 비율은 16주 초과 학생들은 약 23.9%. 그리고 16주 이하 학생들은 약 13.9%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16주 이하 학생들의 경우, 남학생 비율이 16주 초과 학생들에 비해 더 높았다. 전공계열별로 16주 초과 참여 학생의 비율은 의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6주 초과 학생들의 성적, 복수전공 선택 여부, 로그 가구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소재 학생의 비율도 16주 초과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과 만족도, 학과를 자의로 선택한 비율, 아르바이트 여부는 16주 초과 참여 학생에 비해 16주 이하 참여 학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가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가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진로결정과 구직활동 각각 좌측에 Logit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우측에 표본 선택편의 문제를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보다 엄밀한 추정을 실시한 PSM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Logit 분석 결과에서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할 승산(Odds ratio)이 2.15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미경험 학생들에 비해 진로결정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적 효과는 PSM 분석 결과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PSM 분석 결과에서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미경험 학생에 비해 진로를 결정할 승산이 2.378배만큼 높았으며,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Logit 분석과 PSM 분석 결과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git 분석 결과에서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구직활동을 할 승산이 1.7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SM 분석 결과에서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구직활동을 할 승산이 2.145배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통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최종 분석 모형인 PSM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분석에서는 교육계열과 의학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 경우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직활동 여부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가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진로결정		구직활동	
		Logit	PSM+Logit	Logit	PSM+Logit
현장실습 참여 여부		0.769*** (0.138)	0.866*** (0.168)	0.561*** (0.163)	0.763*** (0.201)
개인특성	성별	-0.136 (0.126)	-0.089 (0.212)	-1.031*** (0.186)	-0.976*** (0.294)
	사회계열 (참조: 인문계열)	0.091 (0.195)	-0.116 (0.297)	0.552** (0.244)	0.314 (0.366)
	교육계열	1.415*** (0.274)	1.098*** (0.368)	-0.313 (0.355)	-0.657 (0.457)
	공학계열	0.287 (0.204)	0.038 (0.313)	0.392 (0.272)	0.187 (0.390)
	자연계열	0.096 (0.220)	0.008 (0.329)	0.420 (0.284)	0.054 (0.421)

구분	진로결정		구직활동		
	Logit	PSM+Logit	Logit	PSM+Logit	
의학계열	1.305*** (0.246)	0.978*** (0.345)	0.124 (0.324)	-0.037 (0.412)	
예체능계열	0.499** (0.224)	0.440 (0.338)	0.556* (0.284)	0.579 (0.401)	
성적	0.004 (0.005)	-0.007 (0.007)	-0.014** (0.006)	-0.020** (0.008)	
학과 만족도	0.207*** (0.080)	0.211* (0.125)	0.058 (0.100)	0.037 (0.165)	
복수전공 여부	0.209 (0.150)	-0.087 (0.226)	0.398** (0.170)	0.152 (0.237)	
학과 선택	0.185 (0.135)	0.110 (0.187)	-0.226 (0.160)	-0.270 (0.234)	
아르바이트 여부	0.191 (0.170)	-0.257 (0.252)	0.214 (0.195)	0.145 (0.249)	
가구특성	로그 가구소득	0.005 (0.070)	-0.003 (0.167)	-0.030 (0.090)	-0.116 (0.154)
학교특성	학교소재지	0.233** (0.113)	0.211 (0.176)	0.211 (0.141)	0.074 (0.198)
Cons		-2.085* (1.150)	-0.761 (2.681)	-0.724 (1.480)	1.255 (2.472)
N		1,530	941	1,887	1,111

주: \* p<0.1, \*\* p<0.05, \*\*\*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3.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앞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Logit 분석 결과를 좌측에, PSM 분석 결과를 오른편에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16주 초과 장기현장실습 참여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Logit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기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진로결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장실습 경험자 중에서 장기 현장실습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PSM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16주 이상의 장기현장실습 참여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Logit 분석 결과와 PSM 분석 결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 또한 현장실습 경험 학생들 중에서 16주 초과 현장실습 참여 여부, 즉 현장실습 참여 기간이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통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최종 분석모형인 PSM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 여부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직활동의 경우, 여학생일 경우 남학생에 비해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이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진로결정		구직활동		
	Logit	PSM+Logit	Logit	PSM+Logit	
현장실습 참여 기간 (16주 초과)	-0.038 (0.331)	0.143 (0.452)	0.205 (0.349)	0.077 (0.417)	
개인특성	성별	-0.177 (0.418)	-1.023 (0.668)	-1.334** (0.641)	-1.783* (0.931)
	사회계열 (참조: 인문계열)	-0.949 (0.661)	-0.780 (0.979)	0.905 (0.823)	-0.623 (1.053)
	교육계열	0.352 (0.685)	1.074 (1.085)	-0.151 (0.863)	-1.886 (1.183)
	공학계열	-0.568 (0.720)	0.643 (1.138)	-0.118 (0.989)	-1.739 (1.209)
	자연계열	-0.721 (0.723)	0.063 (1.023)	1.090 (0.882)	-0.861 (1.199)
	의학계열	0.750 (0.714)	1.318 (1.019)	0.531 (0.844)	-1.046 (1.092)
	예체능계열	-0.764 (0.805)	-0.350 (1.185)	0.957 (0.993)	-1.002 (1.318)
	성적	-0.013 (0.014)	-0.026 (0.022)	-0.007 (0.016)	-0.000 (0.023)
	학과 만족도	0.166 (0.234)	0.025 (0.274)	-0.176 (0.244)	-0.132 (0.293)
	복수전공 여부	-0.280 (0.369)	-0.610 (0.501)	-0.038 (0.433)	-0.348 (0.604)
	학과 선택	0.387 (0.322)	0.303 (0.475)	-0.437 (0.341)	-0.283 (0.505)
	아르바이트 여부	0.427 (0.381)	1.213** (0.584)	-0.040 (0.417)	0.642 (0.575)
가구특성	로그 가구소득	0.424 (0.269)	0.392 (0.407)	0.085 (0.314)	0.487 (0.419)
학교특성	학교소재지	0.076 (0.308)	0.422 (0.431)	-0.201 (0.360)	-0.415 (0.493)
Cons		-5.225 (4.205)	-3.889 (6.428)	-1.667 (4.981)	-6.923 (6.508)
N		313	205	329	214

주: \* p<0.1, \*\* p<0.05, \*\*\*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3-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경험이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실습 참여 경험을 참여 여부와 참여 기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참여 기간은 16주 초과와 16주 이하로 구분하여 장기현장실습 참여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택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경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여부는 진로 결정 및 구직활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고, 구직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학생이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역량을 기르며, 직업 조건들을 탐색하는데 의미있는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가 진로 관련 변인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유지원, 2017; 유지원, 송윤희, 2017; 이미나, 유지원, 2019; 이민욱, 이가영, 김정현, 2020; 조현재, 2010 등)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4년제 대학생의 16주 초과 장기현장실습의 참여는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현장실습 경험자 중에서 장기현장실습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현장실습이 단기간의 현장실습보다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결과(윤지환, 박영기, 2005)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보다 유의한 향상을 이루어낸다고 보고한 결과(조현재, 2010)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실습 참여 경험 자체가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구직활동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며, 현장실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실습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가 진로결정 및 구직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진로준비 및 직업 세계로의 이행 준비에 있어서 의미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 현장실습의 양적 성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양적 성장 가운데 대학 교육과정으로서 질적 관리 및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양질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의 영향을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영향을 취업으로까지 넓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을 16주 초과와 16주 이하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장기 현장실습 기간에 해당하는 16주 초과 참여가 진로결정과 구직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다음의 몇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현장실습 참여 기간보다는 참여 그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실습 참여로 인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한 현장실습 기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단기현장실습의 문제로 지적되는 전공과의 연계성, 실무적 전문성에 대한 문제(장후은, 허선영, 이종호, 2017) 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충분한 교육적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면, 16주 초과와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참여 기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장기현장실습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연구(장후은, 허선영, 이종호, 2017)와 장기현장실습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남화성, 유미선, 2018; 이지영, 이상곤, 2019; 조세홍 외, 2019), 현장실습 기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기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적정한 실습기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4년제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실습 운영에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현장실습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이 연구에서는 충분한 사례 수 확보를 위해 5차년도와 6차년도 자료의 각 차수별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기간의 총합을 기준으로 16주 초과와 16주 이하의 기간을 구분하여 참여 기간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장기현장실습 논의에서 언급되는 16주 기간은 일반적으로 1회 참여 시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년도 참여 기간의 총합을 활용한 점은 이 연구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기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사례 수를 갖춘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기간에 따른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학생 전공 중 필수적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의학계열을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021년 고시된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과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은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확보하고자 모든 전공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지만,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결과는 자발적인 현장실습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 전공 중 교육, 의학계열과 같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을 가진 전공을 제외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가혜영, 김보영(2021). 현장실습경험이 대학생의 진로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 연구, 16(210), 143-152.
- 교육부(202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21-33호.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2021b).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
- 김영식, 문찬주(2018). 초과학기 이수자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9(2), 429-451.
- 김청택(2019). 사회과학을 위한 고급 통계학: R을 이용한 분석. 서울: 학지사.
- 김태형, 유영삼, 박지성, 황의택(2023). 교육부 고시 개정이 대학 현장실습학기제에 미치는 영향: 대학 현장실습 운영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6(3), 49-59.
- 김현순(2018). 대학생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251-262.
- 남화성, 유미선(2018). IPP(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K대학교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3), 129-157.
- 민인식, 최필선(2019). STATA 고급통계분석. 경기도: 지필미디어.
- 박지성, 유영삼, 황의택, 김태형(2023). 현장실습제도 고시 개정 이후 대학들의 대응전략 사례연구: H대, C대, S대 사례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26(1), 121-150.
- 백상현(2020).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 활동 경험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4(1), 259-282.
- 송윤희(2017).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 비교. 융합정보논문지, 7(3), 147-152.
- 신현석, 선애경(2019). 대학 산학협력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5(4), 137-167.
- 심태은, 양운정(2022). 대학생이 생각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5), 188-198.
- 연합뉴스(2021.07.10.). 대학생 현장실습 규정 전면 개정 ... '무급 인턴' 사라질까.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146400505>.
- 유영삼, 박지성, 황의택, 김태형(2023).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른 기업의 현장실습학기제 대응 사례 연구.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5(1), 107-117.
- 유지원(2017).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에 따른 진로동기 및 전공만족도 변화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9), 1-21.
- 유지원, 송윤희(2017).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경험 유무 집단에 따른 실무역량, 진로탄력성, 진로 통찰력, 진로정체성의 잠재평균 비교. 진로교육연구, 30(1), 183-202.
- 윤지환, 박영기(2005). 관광관련학과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19(3), 291-302.
- 이미나, 유지원(2019).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이 실무역량 및 진로통찰력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32(1), 99-118.
- 이민욱, 이가영, 김정현(2020). 대학생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및 서비스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3), 79-107.
- 이영선, 장환영, 안홍선, 권현지(2020). 현장실습 참여 대학생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상업교육연구, 34(2), 1-28.
- 이인서(2020).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한 산학협력 유형별 대학의 영향요인 분석: 제도주의 동형화와 자원의존이론 관점에서. 교육정치학연구, 27(4), 285-312.
- 이지영, 이상곤(2019). 장기현장실습에서의 직무특성, 실습만족, 교육성과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307-331.
- 임정연(2016).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명희, 정동열(2016). NCS를 활용한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사례연구. 직업교육연구, 35(3), 1-26.
- 장후은, 허선영, 이종호(2017).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정책 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2), 493-500.
- 정주영(2018).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연구. 교육연구논총, 39(1), 123-147.
- 정주영, 주영효, 전하람(2018).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진로·진학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요인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4(2), 141-165.
- 조성은, 이영민(2016). 대학생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 현장실습 운영 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5), 153-162.
- 조세홍, 장명희, 홍은선(2019). 대학생의 장기 현장실습 관련 요인과 고용가능성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38(6), 23-46.
- 조현재(2010). 현장실습참여유무와 유형이 대학생의 진로개발준비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7), 47-76.
- 최준열, 김한나, 김도기(2017). 대학생의 외부활동경험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HRD연구, 12(2), 63-84.

## ❖ Abstract ❖

### Analyzing the Impact of Field Experiences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Job-Seeking Activities among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Kim Sujin(Seoul National University), Moon Chanju(KRIV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ield experiences of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job-seeking activities. To achieve this, data from the 3rd to 6th year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II were utilized,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was conducted to mitigate selection bia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field experiences showed a higher probability of engaging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job-seeking activities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Secondly, participation in long-term field experiences exceeding 16 weeks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job-seeking activities. In other word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job-seeking activities between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field experiences for more than 16 weeks and those who participated for 16 weeks or les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field experiences for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we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made.

**Key words:** Four-year university student field experience, Career decision-making, job-seeking activities, Propensity score matching